

토시마구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방침

헤이세이 31(2019)년 3 월
토시마구

용 어 해 설

※ 다문화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쌓으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헤이세이 18(2006)년 총무성)

※ 본 방침 안에서는 조사명이나 출전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민」

토시마구내거주자, 구내근무자 혹은 학습자

◇ 「일본국적 구민」

국적이 일본인 구민

◇ 「외국국적 구민」

국적이 일본이외의 구민

◇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국적 구민」

- ① 신청을 통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구민
- ② 양친, 또는 한 쪽이 외국출신자로 일본의 국적을 가진 구민

◇ 「외국 국적 주민」

「외국국적인 구민」 중 토시마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외국국적 등 구민」

「외국국적인 구민」 및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국적 구민」

본 방침 안에서 이용한 단어의 정의



목차

I	기본방침의 책정에 대하여	4
1	책정의 배경	4
2	기본방침의 위치 부여	5
II	현황과 과제	6
1	외국국적 주민의 상황	6
2	주요 과제	6
III	다문화공생의 기본이념	7
IV	다문화공생의 기본시책	7
1	외국국적 등 구민의 생활 지원	7
(1)	언어·규칙 등의 학습 지원	7
(2)	정보제공의 구조 구축	7
(3)	지원단체 등과의 연계	8
2	공생의식의 조성 과 교류추진	8
(1)	의식계발	8
(2)	교류추진	8
3	외국국적 등 구민의 활약 지원	8

I 기본방침의 책정에 대하여

1 책정의 배경

다문화공생에 대한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헤이세이 18(2006)년)에서는 국적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쌓으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시마구에는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주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도시로 발전해 온 역사 있는 본토시마구에 있어서 최근 베트남이나 네팔, 미얀마 그 외 아시아 여러 나라 출신의 구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종래 실시해 온 영어·중국어·한글(한국어·조선어)에 의한 정보제공의 방법이나 일본어학습 지원 등에 대해서도 내용면에서나 방법적인면에 대해 시급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외국국적 등 구민에 대한 대응방법 그 외 공생의 시점에서 받아들이는 지역주민 측에서도 「이해」 「대화」 「관용」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문화를 서로 식별하고 그것을 상호이해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책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공생에 관한 환경정비의 수요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국국적 등 구민이 일본어를 습득하고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동시에 일본국적 구민에게는 외국국적 등의 구민이 지닌 고유의 생활문화를 받아들이는 관대함이 요구되는 등 쌍방의 의식을 계발하면서 공생의 이해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시마구에서는 외국국적 등 구민에 대한 대응이나 타문화교류의 방법을 포함한 다문화공생 추진기본방침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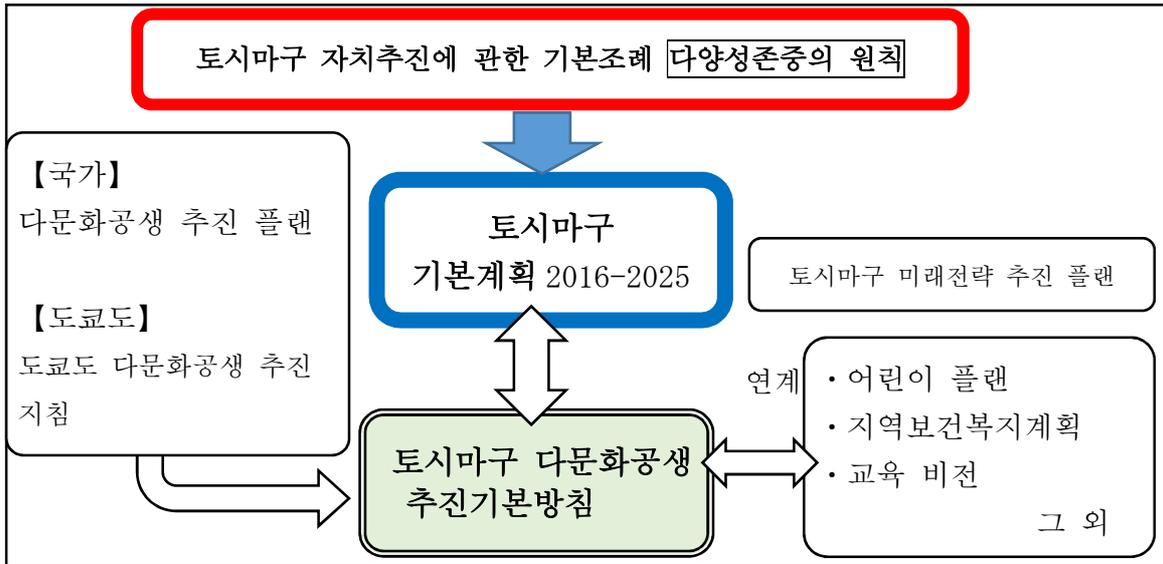
또 본 토시마구의 「자치추진에 관한 기본조례(헤이세이 18(2006)년 조례 1호)」 중에 「다양성의 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가의 다문화공생의 정의나 본 토시마구의 외국국적 주민이 전주민의 10%를 초과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외국국적 구민 및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국적 구민에게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공생을 검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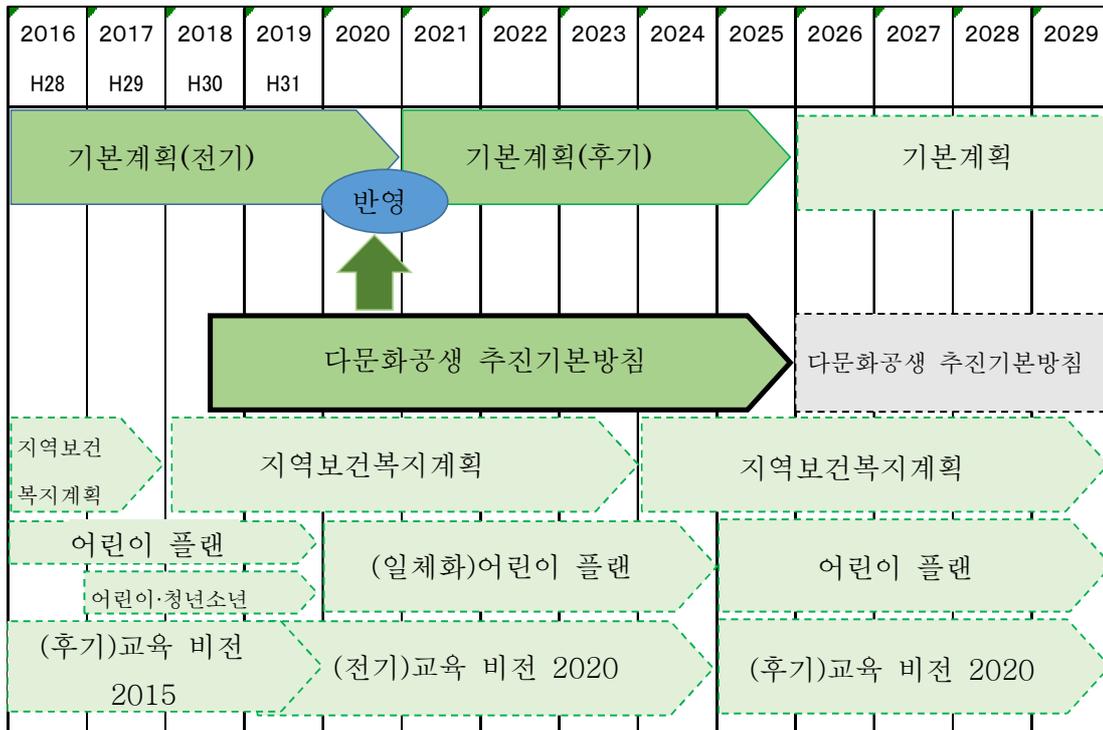
2 기본방침의 위치 부여

본 기본방침은 상위계획인 『토시마구 기본계획 2016-2025』를 바탕으로 토시마구의 다문화공생 시책을 재검토 하고 더 한층 추진 시켜 나가기위한 것입니다.

기본방침의 위치 부여



관련 계획에 대한 기간 등



II 현황과 과제

1 외국국적 주민의 상황

토시마구에서는 아시아 각 국 출신자, 20 대, 유학생, 독신세대의 외국국적 주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매년 약 2,000 명을 넘는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국적 주민의 다국적화(100 개국이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외국국적 주민수: 30,384 명, 총인구의 10.5%(2018. 11. 1 현재)
- 국적별 외국국적 주민수(명)
 - 중국(14,323), 베트남(3,631), 네팔(3,463), 한국 및 조선(2,654), 미얀마(2,269), 필리핀(515), 미국(439), 타이와 프랑스(285), 방글라데시(273)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6 년간 베트남 국적의 주민수는 약 13 배, 네팔 국적의 주민수는 약 5 배, 미얀마 국적의 주민수는 약 2 배로 증가 되고 있다.
 - 외국국적 주민의 거주지역은 이케부쿠로가 가장 많고 다음은 히가시이케부쿠로, 기타오오쓰카의 순임.
 - 연령구성별주민수와 비율: 20~29 세가 가장 많고 주민수의 약 50%
 - 채용자격: 「유학」이 가장 많고, 외국국적 주민의 약 5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채용기간: 「1 년이상 2 년미만」이 가장 많고, 다음은 「3 년이상 5 년 이하」
 - 세대인원수별 외국국적 주민세대수: 독신세대가 80%이상

2 주요 과제

- 외국국적 등 구민, 특히 영어, 중국어, 한글(한국어·조선어)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구민)이나 일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국적 등 구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된 외국국적 등 구민은 일상생활에 관한 규칙이나 제도(쓰레기의 분별, 세금, 국민건강보험 등)를 이해 및 제반수속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 주민과 그 사이에 문제발생의 원인이 된다.
- 같은 국적 등의 구민에 의한 커뮤니티만으로 생활이나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일본국적 주민과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일본인과 공생한다는 의식이 결여되는 상황이 일부에서 보여진다.

Ⅲ 다문화공생의 기본이념

다문화공생도시 실현

- 국적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구민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구민이 서로 존중하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공생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합니다.
- 국적이나 인종의 차이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추진합니다.

(『토시마구 기본계획 2016-2025』에서 인용)

Ⅳ 다문화공생의 기본시책

1 외국국적 등 구민의 생활 지원

(1) 언어·규칙 등의 학습 지원

일본어 교실 등에 의한 일본어 학습은 외국국적 등 구민에 있어서는 일본사회의 창구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어를 습득하는 동시에 일본 생활에 필요한 일본의 제도나 규칙 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외국국적 등 구민이 구민으로의 책임이나 권리를 자각하기 위한 시민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국적 등 구민이 취직이나 통학 등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일본어 학습기회 등을 늘려 갑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불런티어 등 구민의 참가를 지원해 갑니다.

(2) 정보제공의 구조 구축

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근 동아시아 이외의 아시아 각국에서 온 전입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언어에 의한 발신을 검토해 갑니다.

이와 동시에 SNS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정보 발신수단도 함께 검토해 갑니다.

더 상세하게 정보가 전달 되도록 중심이 되는 구민이나 관계단체와 연계해 나갑니다.

특히 재해 시의 외국국적 등 구민에 대한 정보전달 지원이나 재해자의 필요를 구에 전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검토해 갑니다.

(3) 지원단체 등과의 연계

외국국적 등 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내의 일본어교실이나 지원단체 간의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계로도 포함합니다.

또 외국국적 등 구민이 누구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의 서비스나 일본어교실, 지원단체 등에 관한 정보발신을 강화해 갑니다.

2 공생의식의 조성 및 교류추진

(1) 의식계발

유아기부터 다문화공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 감각이 풍부한 인재를 육성해 갑니다.

또 타문화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외국국적 구민과 일본국적 구민이 공생하기 위한 의식을 조성하는 활동을 추진해 갑니다.

(2) 교류추진

외국국적 등 구민이 문화교류사업(음악, 회화, 춤, 식문화 등)을 통해서 구나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또 외국국적 등 구민의 커뮤니티와 일본사회와의 교류 장소로 기존의 지역거점(구민 광장)이나 문화거점(도서관이나 지역문화창조관)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교류형 언어학습을 추진해 갑니다.

3 외국국적 등 구민의 활약 지원

교류와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며 타국적 주민 상호간의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쌍방의 습관등을 소개하거나 문화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등 지역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국적 구민의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같은 지역 구민으로 지역의 공동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갑니다.

토시마구 다문화공생 추진기본방침

헤이세이 31(2019)년 3월

발행 토시마구 정책경영부

기획과 다문화공생 추진 담당

우편번호 171-8422 토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 2-45-1